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27-12:20

요절: 창세기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를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가 1-11장으로 창조부터 시작된 역사이고, 후반부가 12-50장까지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1장 전반부를 공부했고 오늘부터 후반부 족장들에 대해 공부하는 데 그 족장들의 조상이 바로 오늘 배울 아브람입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그 중에 12개장이 아브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24%, 1/4을 차지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람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같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닙니다. 75세 할아버지요, 자식도 없고, 위기를 넘기고자 꾀를 쓴다고 한것이 동역자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셨기 때문에 아브람은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키우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키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시간 아브람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으로 영적 자녀가 된 우리가 아브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11:27-12:3)

창세기 11장 27-32절은 셈의 9대손인 데라의 족보인데, 그는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아브람의 신앙배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된 것 같습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막내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자식이 아비보다 먼저 죽은 것이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병 장수했는데 매우 예외적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불임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당시 자녀를 많이 낳는 셈의 족보 가운데서 매우 예외적입니다. 데라는 두 아들의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려했는데, 무슨 이유때문인지 중간 경유지인 하란에 놀러 앉습니다. 그는 하란에 머물다가 205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본문에는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데라가 주도적인 인물로 기록되었지만 사도행전 7:2,3, 창세기 15:7, 느헤미야 9:7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데라가 아니고 아브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으나 데라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행7:23).

1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향은 태어나고 자라서 정이 든 곳, 친척은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집은 내가 의지하는 편안한 곳입니다. 사람이 일생 살아 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안정되었습니다. 매일 매일 지금까지 늘 살아왔던 방식, 익숙한 방식으로 살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가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 중 출세한 사람이 있으면 자식의 취업을 부탁할 수도 있었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값싼 이자나 혹은 무이자로 큰 돈을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큰 강이 두 개나 옆에 있어서 기름이 나도 어려움이 없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또 뭔가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난나르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5만원 주고 점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 말이 통하는 술친구를 불러 밤새도록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 저런 속내를 털어놓으며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은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집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늦은 나이에는 더 그러합니다. 75세의 나이이면 타지에 있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마무리 해야 야 할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곳을 떠나 하셨을까요? 아브람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고대 바벨론 수메르 지방의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우르 왕조는 BC 약 2,160~2,000년경에 고대에 찬란한 문화를 형성하였던 곳입니다. 이곳은 문화의 발달과 함께 우상이 범람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아버지인 아누신, 하늘의 대기권을 맡은 엘릴신, 땅의 신인 아단신, 지혜의 신인 엥키신, 태양신인 사마슈신, 달의 신인 난나르신, 땅을 잘 딛고 다니라고 나막신, 고무신, 집신 등등 각종 우상의 종류가 3천 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항상 쾌락문화가 뒤따릅니다.(고전10:7,8) 여기서 아브람의 아비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우상판 매업자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다 잡아도 새 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이런 좋지 못한 영향력에서 떠나 사명의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을지도 죄악된 환경을 과감히 떠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험이 없이는 새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22-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릅니다.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는 이런 옛 사람을 과감하게 벗어 버려야 합니다. 좋지 못한 친구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가치관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영적인 투쟁을 한다는 것은 옛 생활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옛생활에서 잘 떠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주소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고 그저 ‘보여줄 땅’으로만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츰차츰 알려 줄 테니까 일단 떠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그 나이에 밑도 끝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나서, 어디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는 자살해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네이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를 갈 엄두를 하지 못합니다. 찍고 가도 해맬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람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나섭니다.(창 12:4) 아브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했습니다.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한걸음 한걸음씩 인도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있는 사람을 쓰시기 보다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 결단의 사람을 쓰십니다. 아브람은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겸손했고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나, 노아의 후손들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교만했고, 자기영광을 구했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질서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맹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따라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브람은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큰 민족’은 단순히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큰 민족이 ‘Big country’가 아니고 ‘Great nation’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건설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아브람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수많은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큰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이르고자 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70개 나라를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노아홍수 이후 300년, 바벨탑 사건 이후 200년이 지난때였습니다.) 인구수가 아무리 많고 군사력, 경제력이 뛰어나도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는 하나님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신4:8).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널리 떨쳤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제국, 몽고제국, 대영제국, 일본도 한때 대일본제국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great nation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는 그런 나라가 결코 great nation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 건설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나라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나라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나라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아브람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합니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네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브람 하면 다 존경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그의 고향에 남아 여생을 마쳤다면 후손도 없이 죽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삶은 세상 모든 사람과 확연히 구별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으면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우리 아브람의 하나님이다” 하셨겠습니까? 아브람은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니 가장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아브람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링컨. 링컨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이 링컨도 아브람을 흡모하여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아브람의 인생을 흡모하여 아브람의 이름을 따서 자신이나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과거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그 이름이 수치스럽게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높아서 거물급인데 대단한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네가 알아서 복이 되라’가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스스로 가정의 복이 되고, 직장의 복이 되고, 학과의 복이 될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영어성경에 보면 “I will make you a blessing”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어서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2-6절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복’이란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 영적질서만 잡히면 얼마든지 축복을 부여주기 원하십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복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평생 헛된 우상을 섬기다 죽을 수 밖에 없는데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브람은 특히 창세기 3: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그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야 예수님이 아브람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2:18절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아브람이 얼마나 복 받은 자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물줄기가 아브람으로부터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는 복의 저수지가 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의 물줄기를 공급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축복의 물줄기가 온 천하에 흘러넘치기 원하십니다. 1부에 000 선교사님은 자신이 받은 귀한 복음을 선교지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60이 가까운 나이에 0000에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장학금을 줘가면서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셨습니다. 대학에 낡은 도서관, 기숙사 시설을 수리 보수해 주고 체육관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000 선교사님을 중앙아시아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묘한 목자님도, 나안드레 목자님도 퇴직을 하시고 75세는 아니시지만 60이 넘는 나이이신데 세계선교를 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도전하시는 것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안드레 목자님은 허리도 안좋으신데 나갈려고 하시니, 저는 무릎만 안좋아도 나갈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계선교에 써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유명한 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동역자모임을 하며 자매목자님들께서 올해 1학기 간호대 점심모임을 이루며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도 수고를 했지만 사랑자매도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모임에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친구들이 안온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자매가 간호대의 복의근원으로 있기 때문에 간호대가 복을 줄로 믿습니다. 재현 형제님도 목포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전공을 감당하다가 수업이 끝나면 본토친척 목포대를 떠나 장막에 거하며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을 통해 장차 목포대의 아브라함으로 크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보십니다. 나 한 사람은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미시적인 동시에 거시적입니다. 현미경으로 나를 보는 동시에 천체 망원경으로 지구 전체를 보십니다. 나 한 사람은 결코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희망으로 택하신 나를 소망의 눈으로 보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각자에게 두신 큰 소망과 비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수 없습니다. 복의 저수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공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어디를 가든 복의 근원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학사수양회때 유럽선교 개척의 조상인 홍갈렙 선교사님께서 ‘UBF 유럽선교 개척역사와 비전’이라는 심포지움을 발표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창세기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목자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1979년 2월에 독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온지 일년뒤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로 자신이 신앙에 근본적인 회의에 부딪쳤습니다. 거기다가 결핵에 걸려 매일 기침과 피를 한컵씩 토해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의 회의로 별로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서 고집을 피우고 병원에 안 갔습니다. ‘이러다 죽지~ 우

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동역자에 의해 억지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통고했습니다. 고 사무엘 선교사님이 심방을 오셔서 성경을 읽으라고 방향을 주셔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 12장 1~3절이 심령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12:2) 하신 말씀이 황폐한 심령에 임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자신을 의미없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보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굉장하고 위대한 존재로 보시는가?’ 깨달음의 전율이 영혼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병으로 죽지 않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마침 스튜가르트 대학에서 입학허가가 나와 이 대학에서 말씀을 전하다 죽자 하며 창세기와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언제 어떻게 치료되었는지 모르게 결핵이 완치되었습니다. 6개월밖에 못산다고 했는데 현재 70세 이신데 정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황무지와 같았던 유럽에 선교사님을 통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현지목자를 지부장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300명 가까운 한국 선교사님들, 60여명의 현지목자들, 성숙한 2세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선교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유럽수양회때는 2세 선교사들이 서빙부터 해서 주인이 되어 열정적으로 수양회를 섬겼고, 그들이 이제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익혀 (이삭이 되어) 유럽 주류사회에 진입하여 독일과 유럽을 복음으로 바꾸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창12: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편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의 인생을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II.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아브람(4-9)

4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 오세였더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나이와 형편 등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의 결단은 위대했습니다. 그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6절을 봅시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황당했을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속았네. 되돌아갈까?”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7,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벤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벤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세겜땅 모레 상수리나 무 밑에 작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벤엘 동쪽 산으로 옮겼을 때도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람이 쌓은 단은 노아의 후손들이 쌓았던 바벨탑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람이 쌓은 제단이 훨씬 귀했습니다. 바벨탑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람이 쌓은 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와께 단을 쌓은 아브람을 축복하시고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시간과 물질을 드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양들과 한 팀의 일대일을 감당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십니다.

III. 아브람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10-20)

10절을 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는데 첫 번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항상 풍년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때 아브람의 믿음이 성숙했다면 여호와께 단을 쌓고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생계문제 앞에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단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사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아내 사래가 대충 대충 생겼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너무 예쁘게 생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쁜 아내를 둔 남편의 고뇌를 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7부 형제 학사님들의 공통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결국 바로에게 환대를 받고 짐승도 많이 얻었지만 아내를 빼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브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팔아 먹는 팔푼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스럽다고 아브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쪼다같이 자기 마누라도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복의 근원이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가 깜짝 놀라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보내주었습니다. 13:2절에 보면 많은 기축과 은금 보석까지 내주었습니다.

아브람으로서는 크나큰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사실 아브람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편이 되어 주셔서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서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연약해서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소망없이 늙어가는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약속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복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자손만대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덩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베푸는 빛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